

韓, 컴퓨터·정보 소양 '세계 최고' 수업사용 비율은 국제 평균 이하

ICT 사용 학습정도 질문에 '53점' 과제 수행시 자아효능감이 낮아 "디지털기기 학습 경험 제공해야"

(2023 ICILS 대한민국 평균점수 및 순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분	컴퓨터·정보소양		컴퓨팅 사고력	
	평균점수	순위	평균점수	순위
한국	540	1	537	2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사용비율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데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도 국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일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EA)가 주관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를 발표했다.

ICILS는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CIL)과 컴퓨팅 사고력(CT)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중2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34개국 학생 13만29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컴퓨터·정보 소양 점수 540점...34개국 중 '1위'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점수는 540점으로 참여국 중 1위에 올랐다. 참여국 평균 점수는 476점이다.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537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성취수준은 최상위를 의미하는 '4수

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에서 각각 6%, 15%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성취수준은 ▲1수준(기초) ▲2수준(보통) ▲3수준(우수) ▲4수준(최상위) 등 총 4개로 구분된다.

1수준 이하 비율은 컴퓨터·정보 소양에서 27%로 참여국 중 가장 작았다. ◆교과수업 중 ICT 사용 및 학생 자아효능감 '평균 하회'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맥락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책임있는 ICT 사용에 대한 학습 정도'를 묻는 질문에 '53점'을 나타내며 국제 평균(50점)보다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질문인 'ICT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정도'는 51점으로, 국제 평균(50점)을 상회했다.

반면, 수업 중 ICT 사용 비율이나 ICT 사용 관련 자아효능감은 '평균 이

하'를 나타냈다. '대부분',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수업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9개 교과 영역 중 '창작·예술'과 '정보' 교과에서만 국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국어(대한민국 14, 국제 평균 27) ▲영어 또는 제2외국어(19, 27) ▲수학(16, 23) ▲과학(17, 28) 등 교과에서는 국제 평균보다 낮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ICT를 사용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아효능감도 국제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문서 생성 및 편집, 인터넷 정보 검색 등을 위한 일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47점으로, 국제 평균(50점)보다 3점 낮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은 국제 최상위 수준인 반면, ICT 사용 비율이 낮고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이 낮았는데, 디지털 기기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15~16일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 열린다

현장에서 수시2차 원서 무료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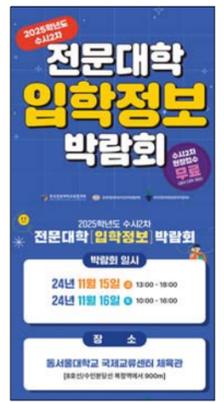
2025학년도 수시2차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오는 15, 16일 이틀간 경기 성남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65개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수험생들은 관심 대학 입시담당자와 1대 1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 대학들이 현장에서 무료로 수시2차 원서접수를 받는다는 점이다. 수험생들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의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참가신청 후 방문하는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며, 스탬프 미션까지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맥스,



애플워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온라인 상담신청 및 사전 참가신청은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사전예약을 놓쳤

다면, 당일 현장등록 및 입장도 가능하다.

한편, '2025학년도 수시2차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는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에서 900m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체육관에서 개최되며, 15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기간은 8일에서 22일까지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베트남서 4500만弗 수출상담 실적

K-뷰티 엑스포 2024

도내 기업 참가비 지원... 통역 서비스

경기도와 킨텍스는 지난 7~9일 3일간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4'를 개최해 45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최대 뷰티전시회인 '사이공 뷰티쇼' (2024 Saigon Beauty Show)와 동시에 열려 K-뷰티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다.

베트남에서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K-뷰티 엑스포에는 경기도 뷰티기업 60개사 60부스가 참여했다.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원료, 피트니스, 스파, 기능성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을 6496명의 베트남 참가객에게 선보였다.

경기도와 킨텍스는 도내 참가기업에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4' 현장 /경기도

부스참가비와 통역 서비스를 지원, 230개 사의 구매자와 상담을 진행해 수출상담액 45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성범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경기도 뷰티기업의 베트남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은 관심과 호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뷰티 강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 시범 운영

사업 유형, 추진 현황 등 확인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개 예정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

서울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서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주요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로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면서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사업 유형별 규모와 추

진 현황 등 분산된 세부 사업 정보를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모으고 유형을 통일했다. 지도를 확대해 사업을 선택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대상 구역이 표시된다. 사업 유형과 규모, 추진 현황, 그밖에 관련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15일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난방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쪽방촌 주민에게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을 지원하고, 밤 추위를 피할 수 있

는 대피소인 '동행 목욕탕'을 확대 운영한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 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득과 가구원 기준 충족 시 동주민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 1만5000여 세대에 보온재 30만여 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3일 (수) 음력 : 10월 13일

수도권 날씨 8 ~ 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0 | 해질 / 17:23

지역별 날씨: 연천 4/18, 동두천 5/19, 가평 4/18, 파주 4/18, 서울 8/19, 양평 6/18, 수원 9/19, 용인 9/19, 평택 7/20, 백령도 10/16, 인천 8/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국 기술의존 줄이자”...유럽 검색엔진들 합작법인 설립
▲돈 통 놓은 트레비 분수 이번엔 '이것' 설치...관광객 줄지어 /사진 뉴시스

▲중국 해경선 편대, 남중국해 분쟁암초 인근서 순찰 항행
▲‘소수여당’ 일본 이시바 정권에 당친 3개 관문...예산·정치개혁·국회운영



▲베트남, 테무·쉬인에 최후통첩...“등록하지 않으면 차단”
▲에르도안 “이스라엘 대가 치러야”...‘무기금수·무역 단절’ 동참 촉구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